



선구적 수학자

이임학(李林學)선생을 추모하며

글_ 주진구 충남대학교 수학과 명예교수 ckchu@math.cnu.ac.kr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선구적 수학자 이임학 교수께서 오랜 지병 끝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이 교수를 존경하고 아끼던 이들과 함께 회고의 정을 나누고자 한다.

광복직후 우리 수학계는 황무지와 같은 환경이었는데, 이 교수는 천재로 알려질 만큼 수학적 재능이 탁월한 분이였다. 경성제대 물리학과에 재학 중 수학에 특히 흥미가 있어 책을 빌려 독학하는 등 워낙 수학 실력이 뛰어나서 물리학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부터 서울대 문리과대학 수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학술지와 도서가 거의 없었으며,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도서가 더러 있을 때였다. 1947년 어느날 이 교수는 남대문시장 길을 걸다가 길가 쓰레기더미에서 미국 수학회의 회보(Bulletin) 하나를 주웠다. 집으로 돌아와 그 책 안에 게재된 막스 조른의 논문을 읽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여 그날로 논문 한편을 완성했다. 이 논문은 1949년 미국수학회의 회보에 실렸다. 또 1949년 이 교수의 지도로 이루어진 윤갑병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은 에르도스의 한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었다. 이렇듯 당시 이 교수의 연구와 교육은 수준 높은 내용이었다. 그 후 이 교수는 1953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 교수로 평생을 보내셨다.

이임학 교수는 한단순군의 무한가족(Infinite Families of Finite Simple Groups)의 17, 18번째인 '리군(Ree群)'을 발견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큰 수학자가 되었다. 이 연구업적으로 이 교수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왕립학회 정회원이 되었다. 프랑스의 석학 디외도네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수학사에서 '군의 이론'에 근원적으로 공헌한 학자 21명을 선정하였는데, 역사에 빛나는 수학자 A. Cauchy, E. Galois, C. Jordan 등과 같이 이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책에 게재된

유일한 분이다.

필자가 이임학 교수를 만난 것은 1996년이 처음이었다. 대한수학회의 초기역사를 편찬하면서 자료가 너무 없어 고심하고 있었다. 고민하던 끝에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원로 수학자들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았다. 광복 후의 수학기계 상황으로 보아 이 교수의 증언은 빼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포항공대의 이정림 박사가 자비로 캐나다에 가서 이임학 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초창기 수학계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기록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박사는 1996년 대한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인 한민족수학자대회에 이임학 교수가 참가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대한수학회에서는 귀국한 이임학 교수를 모시고 국내외의 여러 원로 수학자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이어 과충에서 마련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권경환, 이정림, 고영소 교수와 함께 대답하였다. 이때 대답한 내용들은 대한수학회의 초기역사를 정리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이제 그 분이 타계하셨으니 미흡했던 말을 더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 수학을 혼자 공부하여 한국 현대 수학의 장을 열었고,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큰 수학자가 됐던 그는 이 세상에서 일평생 수학연구에 매진한 것처럼 이제 저 세상에 가셔도 수학을 연구하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삼가 유명을 달리하신 故 이임학 선생을 기리며 명복을 빈다. 

이임학 교수의 학력 및 주요경력

기간	학력 및 주요경력
1939~1944년	경성제대 물리학과 졸업
1946~1953년	서울대 수학과 교수
1953~1955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Ph.D.
1955~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 명예교수
1963~1964년	컬럼비아 대학 초빙교수
1963~2005년	캐나다 왕립학술원 회원